

노인 걷기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갈등에 관한 연구

김종순¹

¹경기대학교 강사

A Study on Recreation Conflicts of the Elderly as Walking Participants

Kim, Jong-Soon¹

¹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creation conflicts that the elderly experienced when walking. Snowball sampling method was employed for the study and 6 senior citizens aged more than 65 were selected as interviewees. There were two or three sessions of in-depth interviews with those through semi structured interview and all contents of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Inductive categorical analysis was employed for drawing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factors causing the elderly's recreation conflict when walking could largely be divided into interpersonal conflict through direct contact and social values conflict through indirect contact. In-group activity style and out-group safety fell into the category of the former while in-group lifestyle tolerance and out-group lifestyle tolerance were concerned with the latt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walking, a form of traditional recreation had social values conflict due to the people with dogs and new equipment users as well as recreation conflict resulting from goal interference.

Key words : Recreation Conflict, Elderly, Walking, Activity Style, Safety, Lifestyle Tolerance, In-group Conflict, Out-group Conflict

주요어 : 레크리에이션 갈등, 노인, 걷기, 활동 행태, 안전, 생활양식 관용, 그룹 내 갈등, 그룹 외 갈등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4444).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ong-Soon

Kyonggi University, 154-42, Gwanggyosan-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Tel:  Fax:+82-31-249-9080, E-mail: sdivertido@hanmail.net

Received: May, 10, 2020 Revised: June, 8, 2020 Accepted: June, 17, 202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의 건강과 행복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노인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감각체계와 운동체계가 약화되고, 환경이나 동작의 방향 및 속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노인에게 적절한 보행은 자세와 운동 조절 능력 향상 및 기능적 체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최중환, 김현주, 신창섭, 연평식, 이재순, 2016). 특히 야외에서 걷기는 스트레스와 피로 지수를 낮춰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최광민, 신원섭, 연평식, 조영민, 2011).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문화체육관광부, 2019), 1순위 여가활동으로 산책 및 걷기를 선택한 비율은 4.5%로 TV시청(43.9%), 인터넷검색(15.9%), 잡담 및 통화(5.3%)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또한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 1, 2, 3순위를 합한 상위 10개 중에는 생활권 공원(21.9%)과 산(9.5%)이 포함된다. 노인의 걷기활동은 주로 근린공원과 수변·체육공원 등 도시공원에서 이루어지며, 참여빈도가 매우 높은 활동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즉, 노년층의 삶의 질과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기능적인 어려움 없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신체활동이 필수적이다(이형숙, 안준석, 전승훈, 2011). 그 중 노인의 걷기활동은 신체적·심리적 기능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여가활동으로 주로 공원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노인 걷기활동의 주요 장소인 공원에서의 여가경험 질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공원은 서로 다른 여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걷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전동 키포드나 휠을 타는 사람, 달리는 사람,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 등 참여하는 활동의 형태가 매

우 다양하다. 서로 다른 레크리에이션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conflict)은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의 욕구가 늘어나고, 기술 발달로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장비와 활동이 개발되고,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확장되고 있다(Manning, 2011). 서로 다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한정된 여가공간 안에서 여가기회를 더 갖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잠재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레크리에이션 그룹 간, 활동 간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Devall & Harry, 1981).

레크리에이션 갈등(recreation conflict)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나의 여가 목적이 방해받는 것이다. 여가행동은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자신의 목적 달성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가욕구와 성취 사이의 차이가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레크리에이션 갈등은 객관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참여자의 경험, 믿음, 태도에 기반하는 주관적 상태이다. 따라서 목적 방해인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대인 갈등(interpersonal conflict) 그리고 간접 접촉에 의한 사회적 가치 갈등(social values conflict)이 관측되었을 때, 문제로 인식하면 갈등이지만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갈등이 아닌 것이다(Vaske et al, 2007).

레크리에이션 갈등의 주요 요인은 활동 형태(activity style), 자원 독특성(resource specificity), 경험 방식(mode of experience), 생활양식 관용(lifestyle tolerance) 등이다(Jacob & Schreyer, 1980). Manning(2011)은 레크리에이션 갈등의 개념을 개괄하고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작업을 종합하여 확장된 모델을 도식화해 제시하면서, 기대(expectation)와 안전(safety) 요인을 포함하였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갈등 요인은 직, 간접 접촉에 의한 목표 방해에 따른 갈등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며, 민감도는 레크리에이션 참여자와 그룹 외, 그룹 내, 관리자, 다른 자원 이용자 간에 나타나는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Watson,

Niccolucci, & Williams, 1994; Ramthun, 1995). 갈등 민감도는 참여자들에게 다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를 질문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간접적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갈등은 다른 참여자들이 그들의 목표나 즐거움을 방해했는지와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갈등은 대처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즐거움과 만족도를 감소시킨다(Manning, 2011).

이러한 개념적 특성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갈등의 실증적인 분석은 ‘목적방해(goal interference)’ 또는 ‘대인관계갈등(interpersonal conflict)’ 그리고 ‘사회적 가치갈등(social values conflict)’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그리고 갈등의 대상에 따라 그룹 간(박종구, 심재명, 진이환, 2007; 이해린, 김남조, 이훈, 2013; Tumes, 2007), 그룹 내(Vaske, Dyar & Timmons, 2004), 새로운 참여자의 등장(Cordell, 2012) 등으로 나누어 연구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강공원의 자전거 집단 드라이브 및 폭주, 전동 휠·보행자 접촉 사고, 반려견 관리 소홀 등 걷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한 관리 강화 문제를 들 수 있다(브릿지경제, 2017. 5. 30). 또한 산림공원에서는 하이커가 말이나 자전거, 모터사이클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산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McCay, 1976). 이외에도 자연환경에서 카누와 모터보트 이용자, 크로스컨트리 시키어와 스노모빌러, 낚시와 워터스키 참여자, 스키어와 스노보더 간의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들 수 있다.

Manning(2011)은 목적방해나 대인관계갈등은 활동 구역을 나누는 등의 공원관리가 필요하며, 잠재적인 사회적 가치갈등은 여가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갈등에 민감한 참여자를 위한 공원의 경영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레크리에이션 갈

등은 여가경험의 즐거움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노인의 걷기가 생활체육에서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를 잡았고, 생활권 공원에서 자발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니만큼,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걷기를 즐기는 노인은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레크리에이션 갈등 민감도가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갈등은 노인의 걷기활동 만족과 지속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들이 걷기활동에서 경험하게 되는 레크리에이션 갈등 연구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활동을 즐기는 참여자와의 목표방해, 대인관계 갈등 그리고 사회적 가치갈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 걷기활동에서의 그룹 내 갈등 요소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노인의 걷기활동에 관한 연구는 걷기와 신체적·정신적 운동 효과(박수정, 전유나, 김창근, 2017; 허안식, 이충철, 변용현, 2016)나 긍정적인 운동경험(김병훈, 김소연, 2019; 이환호, 윤인해, 2019)에 관한 주제가 다수를 이루며, 레크리에이션 갈등과 같은 즐거움이나 만족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노인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느끼는 레크리에이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과연 노인은 자주 참여하고 즐겨하는 걷기 활동 중에 어떤 갈등요인을 경험하며,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이 걷기활동에 참여할 때 경험하는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인 걷기활동의 레크리에이션 갈등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걷기 경험의 질을 높이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노인의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걷기 활동을 위한 공원 관리의 정책자료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책로와 한강공원, 근린공원, 하천변 등에서 최소 일주일 3회부터 매일 걷기 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수도권 거주 65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 기준은 생활권 공원에서 지난 1년 간 규칙적으로 걷기 활동에 참여한 경우로, 빈도는 최소 일주일에 3회 이상 참여자로 제한하였다. 걷기는 일상에서 간헐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참여한 경우로 레크리에이션 갈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은 하나 혹은 몇몇 사례들의 소개자를 이용하여 사례들을 수집한 후 그 사례들을 소개자로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였다. 연구자의 지인인 최초 2인의 연구참여자를 통하여 소개를 받았으며, 소개자로부터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표집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참조).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번호	참여자	나이	성별	걷기장소	빈도(회/주)
1	A	66	남	산책로	5
2	B	69	남	한강공원	3
3	C	72	여	근린공원	7
4	D	68	여	하천변	3
5	E	65	여	하천변	3
6	F	74	여	한강공원	7

참여자 중 남성은 2명, 여성은 4명이며, 모두 60대와 70대이다. 참여자들은 주로 집 주변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으로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이 이루어지기 전 연구의 목적과 질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자의 동의 후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참여자가 정한 장소로 카페나 공원에서 진행하였고, 면담시간은 회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2~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전화통화를 통해 보완하였다. 면담은 예비면담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비구조화된 면담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세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모든 녹음 내용은 전사하였으며, 유사한 내용을 토대로 부호화 및 범주화를 진행하였다. 전사된 내용을 여러 번 읽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의미들을 개념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레크리에이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적방해에 따른 갈등 민감도 그리고 갈등 발생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키워드를 추출하고, 상징적인 문구들로 하위 범주를 도출하여, 각각의 하위 범주를 상위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박기우, 이정우, 유희숙, 문성균, 박혜상, 2013).

4.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동의와 삼각검증법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심층면담 전 연구목적과 질문지 내용에 대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였고, 자료수집에 대한 익명성과 심층면담 시 진행된 녹음 및 전사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점에 동의를 얻었다. 연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과도한 해석으로 인한 오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노인스포츠 전공 교수 1명, 스포츠문화 전공 교수 1명,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전공 박사 3명을 통해 동료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중 1명으로부터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박기우 외, 2013).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노인 걷기 참여자들의 레크리에이션 갈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활용한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갈등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2〉참조).

표 2. 노인 걷기활동의 레크리에이션 갈등 범주

목적방해	갈등발생	레크리에이션 갈등 요인 및 내용	
직접 대인적 접촉 갈등	그룹 내	활동형태	진로방해 혼잡과 소음
	그룹 외	안전	전용트랙 부재 자전거 과속
간접 사회적 접촉 가치	그룹 내	생활양식 관용	반려견 동반자와의 가치 차이
	그룹 외	생활양식 관용	새로운 장비 이용자와의 가치 차이

우선 목적방해에 따른 대인적 갈등과 사회적 가치로 나누어 갈등이 발생하는 그룹 내와 그

룹 외로 나누어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직접 접촉에 의한 대인적 갈등은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경우는 활동 행태에 따라 나타났으며, 그룹 외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경우는 안전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사회적 가치 갈등은 그룹 내·외에서는 생활양식관용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직접 접촉에 의한 대인적 갈등

1) 그룹 내 활동행태(activity style)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갈등

대인적 갈등은 직접 접촉에 의한 목적방해를 의미하는데, 같은 활동을 하는 그룹 내에서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노인 걷기참여자들의 경우 건강을 위해 운동효과를 기대하며 주3회 이상 또는 매일 걷기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운동효과를 기대하며 걷기에 참여하지만 원하는 만큼 땀이 나지 않거나 원하는 속도로 걷기를 못할 때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 사람이 일렬로 쭉~욱 서서 수다 떨고, 그렇게 걸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찌라는 건지 모르겠어. 뒷사람 오던지 말던지 서서 잠담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걸으면서 웃으면서 도대체 신경을 안 쓰고 걷는다니까... 그럼 나는 ‘좀 비킵시다’ 그러면서 안 좋은 소리를 해야 하니까 기분이 안 좋고, 땀도 안 나고, 운동하러 나왔다가 이런 걸 많이 봤지.” (A, 남성, 66세)

“걷다가 갑자기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니면 뒤로 걷는 사람도 있고,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지...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마주 오는 사람이 안비켜줄 때고 있고... 남 운동하는 거 방해할 한다니까요. 나는 아까운 시간 내서 걸으러 나왔는데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렇게 하려면 좀 사람 없을 때 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던지

그러지... 사람들 다 운동하는데 그러고 있으면 답답하죠.” (E, 여성, 65세)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거주지 주변 익숙한 공원에서 주위 풍경을 감상하며 조용히 걷고자 하는데, 사람이 유난히 많은 구간이나 시끄럽게 떠들면서 무리지어 걷는 사람들로 인해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을 때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크게 틀어놓는 경우 등이다.

“음악을 이어폰이 아니라 스피커로 크게 틀고 걷는 사람들이 있어. 혼자 좋아하는 노래를... 비슷한 속도로 걷게 되면 계속 그걸 들어야 하는데 뭐라 말도 못하고 아주 뭐랄까 불쾌하다고 해야 하나 불편해. 기분 좋게 왔다가 그런 사람 하나 만나면... 예휴... 일부러 좀 쉬었다가 저만큼 지나가면 다시 걷고 하지. 이게 단순한 운동이라도 꽤 운동이 되거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라 그럴까 운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저기 멀리 보면서 천천히 걸을 수도 없다니깐...” (C, 여성, 72세)

“날씨가 좋거나 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 걸을 수가 없어. 지금은 좀 더우니까 그렇지. 밤에도 그렇고. 선선할 때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이 붐벼서 빨리 걸기가 힘들지. 사람이 많아서 길이 좁아지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짜증나. 그래서 난 사람 없을 때 주로 나와.” (F, 여성, 74세)

이렇듯 걷기 참여자들 간 ‘진로방해’에 따라 활동행태의 레크리에이션 갈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걷는 장소에 사람이 많거나 다른 사람의 대화 소리가 너무 크고 음악을 스피커로 듣는 등 주로 ‘혼잡과 소음’에 의한 활동행태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그룹 외 안전(safety)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갈등

레크리에이션 갈등은 다른 활동을 하는 그룹

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 목적방해를 경험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노인 걷기 참여자들은 주로 걷는 장소가 일정하고 생활권 내 공원이다 보니, 특히 걷기 전용트랙이 없는 구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이용자와의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동네는 걸을 만한 데가 굉장히 많아서 좋아. 그건 좋은데... 가다가 걷다가 보면 전용도로가 없어지거든 그럼 자전거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좁은 길에서 서서 이리저리 살피고... 가다보면 커브길이 있는데 거기서 전용도로가 끊겨. 거기만 지나면 한참 걸을 수 있어 좋은데. 거기가 문제지.” (B, 남성, 69세)

“자전거 타는 트랙은 따로 저쪽에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조깅하고 걷고 하는 트랙에 와서 타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입구에서 내려와서 타야 하는데 잘 안지키지. 내려왔다가 전용 트랙에 가서 시작하는게 맞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내리기 싫으니까 그냥 간다고...” (D, 여성, 68세)

또한 노인 걷기참여자들은 자신의 걷기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경우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와 자전거 전용 트랙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 걷기참여자들은 ‘자전거 과속’에 따른 안전위협으로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너무 속도가 빠르면 무서워요. 옆으로 뺄뺄 지나가는데 자전거거리 부딪힐까봐도 무섭고, 넘어지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한산할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많은 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저기 멀리 가서 타야지. 여긴 나같이 걷는 사람이 많은데 겁나지.” (C, 여성, 72세)

“좋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수 용인가봐. 날렵하고 속도가 어찌나 빠르는지 다른 사람들 제치고 앞질러 가는 거 보면 과속이지. 과속기준은 잘 모르지만... 공원에서 과속하면 안되고 다칠 위험있으니까. 운동하러 나왔다가 다치면 큰일이야.” (F, 여성, 74세)

이렇듯 걷기 활동 시 전용트랙이 없는 구간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만나거나 자전거 이용자의 과속으로 인해 기대했던 쾌적한 걷기 활동에 방해될 때 안전에 위협을 느끼며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2. 간접 접촉에 의한 사회적 가치 갈등

1) 그룹 내 생활양식 관용(lifestyle tolerance)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갈등

사회적 가치 갈등은 간접 접촉에 의해 레크리에이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크리에이션 장소에서 실제로 목표를 방해받거나 어떤 행동이나 현상을 보지 않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갈등요소이다. 노인 걷기참여자들은 반려견을 동반한 걷기 참여자에 대한 가치 차이를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반려견과 동반자가 자신의 걷기참여에 직접적인 방해나 불편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차이에 의한 갈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노인 걷기참여자들의 경우는 반려견을 키우는 걷기 참여자의 생활양식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관용 부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사람은 너도나도 강아지를 키우니까... 그렇다고 그 강아지 주인이나 강아지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멀리서만 봐도 그냥 싫어. 요즘 광고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반려견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근데 반려견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해. 다 강아지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공원

같은 곳에서는... 관리를 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B, 남성, 69세)

“개를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반려견들이 나한테 다가오지는 않을까 불안해... 개 끌고 나와서 줄 길게 늘이는 사람도 있고, 걷고 있는데 개 놀린다고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개를 한 서너 마리씩 끌고 나오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D, 여성, 68세)

이렇듯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걷기 활동에 직접적인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주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미 형성된 편견으로 인해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2) 그룹 외 생활양식 관용(lifestyle tolerance)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갈등

레크리에이션 참여자들은 다른 활동을 하는 그룹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치 갈등을 경험한다. 노인 걷기참여자들의 경우는 새로운 장비인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자신의 걷기 목표에 직접적인 방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생활양식의 차이와 편견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는 그래도 도로 거기로만 다니는데, 모터달린건지 전기로 가는건지 바퀴하나만 달고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브레이크가 잘 조정될까도 싶고... 그래요.” (E, 여성, 65세)

“킥보드도 요즘 자전거마냥 빌려주는 데가 많은지... 젊은... 대학생들이... 두 명씩도 탄다니까. 그러고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보기 좋지 않지.” (B, 남성, 69세)

이렇듯 걷기 활동 시 자전거 이외에 전동 휠이나 전동 키포드를 타고 다니는 젊은 이용자들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장비 이용자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며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이 걷기활동에 참여할 때 경험하는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귀납적 범주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 걷기참여자들은 걷기 활동 중 직접접촉에 의해 같은 활동을 하는 걷는 사람들의 활동행태에 의해 대인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고, 다른 활동 참여자와는 안전문제에 의해 대인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노인 걷기참여자들은 걷기 활동 중에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걷기 활동 목적에 방해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활양식 관용의 차이에 따라 다른 걷기 참여자 그리고 다른 활동 참여자와 사회적 가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점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레크리에이션 갈등 중 활동행태(activity style) 요인은 참여 동기, 참여강도, 장비나 전문성 정도, 경험의 범위 등을 포함한다(Jacob & Schreyer, 1980). 본 연구의 노인 걷기참여자는 참여 동기가 다른 걷기 참여자로 인해 방해될 때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운동효과를 기대하며 또는 조용한 걷기를 목적으로 하는데, 다른 걷기 참여자의 진로방해나 혼잡, 소음 등은 방해로 인식된다. 노인에게 걷기 능력은 기초적인 생활과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이유미, 박연환, 2018), 지속적인 걷기 활동 참

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자유감, 유능감, 사회성을 향상시킨다(이환호, 윤인애, 2019).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는 바, 노인 걷기 참여자들은 걷기를 통해 얻는 효과를 높이고자하는데, 이러한 목적이 방해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갈등이 나타났다. 최근 홍장원(2019)의 해양레크리에이션의 대인적 갈등과 사회적 가치갈등 영향요인 분석연구에서 스쿠버다이빙 참여자들은 대인적 갈등 경험이 프리다이빙 참여자에 비해 높으며, 참여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대인적 갈등을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다른 레크리에이션 동기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낮은 경험을 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Jackson & Wong, 1982).

레크리에이션 갈등 중 안전(safety)은 활동 중 느끼는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장된 갈등 모델 요인 중 하나이다(Vaske, Carothers, Donnelly, 2000). 특히 본 연구의 노인 걷기참여자의 경우, 활동 간 전용트랙 부재로 자전거 이용자를 만났을 때, 자전거 이용자의 과속 등으로 인해 그룹 외 대인적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김지혜, 원형중, 김미혜(2011)는 걷기 참여자와 자전거이용자 간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연구한 결과, 속도요인에 있어 도보사용자가 자전거사용자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우진, 이장희, 여인성(2005)은 스키참여자와 스노보드 참여자들은 각각 다른 활동 참여자에 의해 안전성요인이 레크리에이션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직접접촉에 의한 대인적 갈등에서 노인 걷기 참여자들은 활동행태와 안전에 관한 레크리에이션 갈등요인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룹 내, 그룹 외에서 갈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레크리에이션 갈등 중 생활양식 관용(lifestyle tolerance)이란 생활양식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다(Jacob & Schreyer, 1980). 본 연구의 노인 걷기참여자의 경우, 반려

견 동반 걷기 참여자와의 가치 차이에 따라 그룹 내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동에서 동물과 관련된 사냥이나 반려견 동반 활동은 레크리에이션 갈등 연구의 중요한 주제이다. 사냥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다른 환경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경험한다(Vaske, Donnelly, Wittmann, & Laidlaw, 1995). 반려견의 경우는 반려견 동반자의 관리문제로 인한 레크리에이션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사회적 가치 갈등이 제시된 바 있다(Watson, Niccolucci, & Williams, 1993). 황희정, 윤현호(2014)는 반려동물 동반자에 대한 여가활동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관용도 부족과 사회적 예의 미준수가 갈등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목적 방해보다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여가참여자 간 편견으로 작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노인 걷기 참여자의 경우, 그룹 외 전동 휠이나 전동 키보드를 사용하는 새로운 장비 이용자와의 가치 차이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Jackson 및 Wong(1982)의 연구에서는 동력을 이용하는 장비 사용자가 그렇지 않은 여가참여자에 비해 상대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갈등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여가 활동인 걷기 참여자의 경우는 전동 휠이나 전동 키보드 참여자에 비해 그룹 외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으며, 레크리에이션 갈등 인식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생활양식 관용에 관한 사회적 가치 갈등은 자신과 다른 사회적 시각과 행태를 가진 그룹과 자원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 특정한 레크리에이션 환경을 고의로 선택하기도 한다(Pigram & Jenkins, 2006). 이렇듯 간접접촉에 의한 사회적 가치 갈등은 노인 걷기 참여자들의 생활양식 관용요인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룹 내,

그룹 외에서 갈등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전통적인 여가활동인 걷기는 직접 접촉에 의한 대인적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갈등에 대해 그룹 내, 외 모두에서 레크리에이션 갈등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걷기 참여자 그룹 내에서 목적 방해와 생활양식 관용 차이로 인한 갈등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룹 외에서는 장비사용자와의 안전과 생활양식 관용 차이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갈등이 나타났다. 이에 노인 걷기 참여자를 위한 목적 방해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의 분리와 확보가 정책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인 걷기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갈등에 대한 그룹 내·외의 교육적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노인 걷기 참여자들의 레크리에이션 갈등 중 활동행태, 안전, 생활양식 관용 등 민감한 요인을 제시하고, 그룹 내·외 갈등 그룹을 밝혔다는 점에서 레크리에이션 관리를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레크리에이션 갈등은 민감하게 인식하는 활동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활동 참여자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또는 일방향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감한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Manning, 2011).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 걷기 참여자들의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질적 연구 방법인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직접접촉에 의한 대인적 갈등과 간접접촉에 의한 사회적 가치갈등에 따른 그룹 내·외의 레크리에이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걷기참여자들은 걷기 활동 중 직접접촉에 의해 같은 활동을 하는 걷는 사람들의

활동행태에 의해 대인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고, 다른 활동 참여자와는 안전문제에 의해 대인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노인 걷기 참여자들은 걷기 활동 중에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걷기 활동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활양식 관용의 차이에 따른 다른 걷기 참여자 그리고 다른 활동 참여자와 사회적 가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레크리에이션 갈등이론을 기반으로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요인을 도출하였다. 다만, 걷기 참여자와 특정 그룹 간 레크리에이션 갈등을 분석하지 않은 한계점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자전거이용자와의 대인적 갈등과 새로운 전동 장비이용자와의 사회적 가치 갈등에 대한 추후 양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확장된 갈등 모델에서 제시된 갈등과 대처행동 그리고 즐거움과 만족도의 감소 등의 관계 분석이 요구된다.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원에서의 레크리에이션 갈등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 분석을 위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회적 가치갈등은 여가와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따른 중요한 연구 결과로 판단된다. 간접접촉에 의한 사회적 가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생활양식 관용 이외의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김병훈, 김소연(2019). 걷기 동아리 참여 노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운동 관여도와 운동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3(2), 109-122.

김지혜, 원형중, 김미혜(2011). 한강공원의 자전거 이용자와 도보산책자간의 레저갈등. *한국*

체육학회지, 50(5), 285-294.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박기우, 이정우, 유희숙, 문성균, 박혜상(2013). 사회 연구조사 방법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방법. 서울: 이앤비플러스.

박수정, 전유나, 김창근(2017).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과체중 남성 노인의 혈중 Irisin 및 FGF-21 농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6(5), 1137-1148.

박종구, 심재명, 진이환(2007). 도보산책자와 ATV 이용자간의 레저갈등 유발요인에 대한 연구. *관광학연구*, 31(4), 321-342.

브릿지경제(2017. 5. 30). 전동휠 단속하고 주자 혼잡 해소.. 한강공원 5대 대책 시행. 브릿지경제.

이유민, 박연환(2018). 골관절염 노인의 운동지속 경험: 포커스 집단면접. *근관절건강학회지*, 25(1), 1-11.

이혜린, 김남조, 이훈(2013). 야외 레크리에이션 이용의 편견과 관용 및 갈등의 관계: MTB 이용자를 조우한 등산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7(9), 295-315.

이형숙, 안준석, 전승훈(2011). 도시 노인들의 걷기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환경요인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9(2), 65-72.

이환호, 윤인애(2019). 노인의 걷기 운동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일산 호수공원을 걷는 노인들.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8, 407-424.

최광민, 신원섭, 연평식, 조영민(2011). 산림 걷기 운동이 스트레스와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5(1), 61-66.

최종환, 김현주, 신창섭, 연평식, 이재순(2016). 12 주간의 산림걷기 운동이 중년여성의 기능적 체력,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0(3), 27-38.

한우진, 이장희, 여인성(2005). 스키 리조트 이용자의 여가갈등에 관한 연구: 스키와 스노우 보드를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

- 학회지, 29, 195-207.
- 허안식, 이종철, 변용현(2016). 농어촌 노인의 걷기 운동 프로그램 참여가 노인체력검사 및 건강관련 삶의 질(EQ-5D)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4(3), 333-338.
- 홍장원(2019). 목적방해이론의 적용을 통한 해양 레크리에이션의 대인적 갈등과 사회적 가치갈등 영향요인 분석: 해양레크리에이션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 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 황희정, 윤현호(2014). 반려동물 동반자에 대한 여가갈등 영향요인과 대응행동 분석. *관광레저연구*. 26(2), 353-372.
- Jackson, E., & Wong, R. (1982). Perceived conflict between urban cross-country skiers and snowmobilers in Alberta.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 47-62.
- Devall, B., Cordell, H. K. (2012). *Outdoor recreation trends and futures: A technical document supporting the forest service 2010 RPA assessment*. NC: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 Jacob, G., & Schreyer, R. (1980). Conflict in outdoor recreation: A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368-380.
- Manning, R. (2011). *Studies in Outdoor Recreation: Search and Research for Satisfaction*. CV: Oregon State University Press.
- Ramthun, R. (1995). Factors in user group conflict between hikers and mountain bikers. *Leisure Sciences*, 17, 159-169.
- McCay, R. (1976). Ohio trail Users. USDA Forest Service Research Note NE-228.
- Pigram, J., & Jenkins, J. (2006). *Outdoor Recreation Management, 2nd ed.* NY: Routledge.
- Tumes, K. (2007). Out of my way: Using qualitative methods to understand recreation conflict between bushwalkers and mountain bike riders. *Anthropological Notebooks*, 13(1), 45-55.
- Vaske, J., Carothers, P., Donnelly, M., & Baird, B. (2000). Recreation conflict among skiers and snowboarders. *Leisure Sciences*, 22, 297-313.
- Vaske, J., Donnelly, M., Wittmann, K., & Laidlaw, S. (1995). Interpersonal versus social-values conflict. *Leisure Sciences*, 17, 205-222.
- Vaske, J., Dyar, R., & Timmons, N. (2004). Skill level and recreation conflict among skiers and snowboarders. *Leisure Sciences*, 26, 215-225.
- Vaske, J., Needham, M., Cline Jr., R. (2007). Clarifying interpersonal and social values conflict among recreationis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9(1), 182-195.
- Watson, A., Niccolucci, M., & Williams, D. (1994). The nature of conflict between hikers and recreational stock users in the John Muir Wildernes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372-385.
- Watson, A., Niccolucci, M., & Williams, D. (1993). *Hikers and Recreational stock Users: Predicting and Managing Recreation Conflicts in Three Wildernesses*. USDA Forest Service Research Paper INT-468.